

건강칼럼

무의식이 열려있는 정신병

현 사회에서 언론에 자주 나오는 질병 중의 하나가 정신병이 아닌가 생각된다. 생각지도 못한 심각한 살인사건, 성폭력, 강간 등에는 정신병이 언급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사고를 내고서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정신병을 거론하기도 한다. 정상적인 사고와 윤리에서는 큰 죄로써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는 정신병의 이해와 정신병이 오게 된 사회적 현상과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한다. 정신적인 질환에 관해서는 한의학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다. 동의보감에 보면 몸의 중요한 것으로 정(精), 기(氣), 신(神)이라고 하여 우리 몸을 운행시키는 중요한 성분으로 보았다. 그중에서 신(神)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심(心)에 신이 있다고 하여 신(神)과 심(心)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또한 희(喜), 노(怒), 우(憂), 사(思), 비(悲), 경(驚), 공(恐)의 七神(칠신, 七情(칠정))이라고 하여 질병과 관련시켜 이러한 감정에 의해서 다르게 질병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 정신질환으로 경기(京畿), 정충증(??症), 건망증, 간질증, 울광증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하였다. 사상체질의학에서는 애(愛), 노(怒), 희(喜), 락(樂)의 성(性)과 정(精)에 따라서 체질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병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모두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김수범
우리한의원장

의 정신질환에 접근하는 방법이었다. 여기서는 프로이트, 라캉 등의 정신분석적인 면에서 접근하여 보거나 한다. 한의학과는 다른 접근 방법이지만 서로 통하는 면도 없지 않다. 정신분석에서 정신질환은 크게 정신병, 신경증, 도착증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신경증에는 히스테리, 강박증, 공포증으로 구분하였다. 이중 정신병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한다. 정신병은 폐제(廢除)되었다고 한다. 신경증의 억압, 도착증의 부인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자아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지도 경멸해 보지도 못한 것으로 처음부터 보거나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다. 어머니와 아이의 밀접한 관계에서 아이가 주체로써 자리를 잡아야 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견제를 해 줌으로써 주체가 형성되어 사회적, 언어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견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무의식의 형성이 완전하게 되지 않음으로써 정신병의 발생할 수 있다. 정신병이 있

다고 하여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발병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경우에 나쁜 생각, 성격인 생각, 비도덕적인 생각, 비윤리적인 생각, 충동적인 생각이 나타날 때 억압을 하여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게 한다. 충동이 일어나도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인 생각을 하여 억제를 하게 된다. 그러나 정신병에서는 무의식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억제하지 못하고 바로 현실에서 표현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다. 흔히들 정신병은 무의식이 열려 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자신의 생각에 있어서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보통 죄의식은 억압을 전제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무의식이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의해서 상징화가 되어야 한다. 무의식은 언어로 구성되어지며 언어에 의한 상징화로 구성되어 진다. 정신분석에서는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보여지

는 것은 상상계로서 눈으로 보아서 형성된 것이다. 상징계는 어떤 물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언어에 의하여 상징적으로 무의식에 인식하는 것이다. 실재계는 본질 자체를 말한다.

정신병에서는 언어에 의하여 상징계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상징계가 없으므로 욕망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또 억압이 없기 때문에 의심과 질투도 생기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과거, 동기, 심지어 사고와 꿈에 대해서도 전혀 질문을 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사고하는데 취약한 면을 보인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한다. 정신병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상식적인 생각, 교육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면이 많기 때문이다. 사회적, 도덕적,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신병은 어머니와 자녀 간의 밀접한 관계, 즉 어머니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이는 어머니의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서로 벗어나지 못하고 생활을 한다던 아이의 주체가 형성되지 않아 정신병이 발병하는 것이다.

어머니와 아이의 사이에서 아버지의 이름, 즉 역할로 어머니와 아이사이에서 간격을 두게 하는 것이 정신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사설

군산의 광주형 일자리 기대감 높아

군산형 일자리 추진 여론이 높다. 광주형 일자리가 극적 타격을 본 까닭이다. 따라서 군산이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그에 대한 반가움을 말하기에는 군산시민들의 마음이 타들어 버릴 대로 타버렸다. 군산시를 살려내야 한다고 여러차례 반복해 촉구했던 대로 군산시민들은 지금 만시지탄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도 어쨌든 군산 살리기는 지금이 기회이다. 따라서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번에 군산 살리기를 확실하게 해야겠다.

전북을 위해서 전북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군산을 위해서도 군산형 일자리가 더욱더 필요하다. 지난날 군산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조기 지원 약속이 있었지만 그게 뚜렷한 대책이라고 믿는 이는 별로 없었다.

군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지원은 그저 원론적인 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번에 군산형 일자리 추진 행보가 뚜렷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등 잇따른 주력산업의 붕괴로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은 군

산 경제를 위해서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군산형 일자의 규모를 확실하게 해두는 일이다. 매번 절실한 것은 손에 쥘 수 있는 돈이니까 말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시민의 뜻에 부응해 군산 살리기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것도 올해 상반기에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군산의 경제 몰락 때문에 전북 전체의 경제가 함께 흔들리고 있는 작금이니 말이다.

다시 강조해 당부하거니와 군산을 살려내기 위해 인간 힘을 써야겠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사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계획을 물어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군산과 구미와 대구가 구체적인 계획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그 발언의 행간을 심상하게 넘겨서는 안된다.

민약의 경우 구미나 대구 중 하나에 밀리게 된다면 군산시민들은 실망이 무지 클 것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번에 계류 찾기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군산형 일자리 추진 발언들이 또 다시 민심 달래기용으로 그치고 만다면 곤란하다. 군산을 살려내겠다고 천명했으면 필히 살려내는 것을 보여줘야 맞다.

전북 대도약 일자리로 증명해야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는 도지사의 예전 발언에 대해 생각하고픈 지금이다. 도지사의 그 발언은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그때 도지사는 변화를 말했다. 여기 다시 짚어 볼 게 있다. 대도약은 한 두 가지 현안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늘 요구하는 바이지만 전북의 대도약은 많은 일자리로 공감을 얻어야 한다. 저번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비유적을 말하자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약속어음일뿐 현찰은 아니다.

도지사를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은 대도약의 성격을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부가가치를 지닌 블루오션이라 판단했기에 그랬을 터이다. 그래서 지금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전북도는 대도약을 위해 농생명 분야에 많은 힘을 투입해야 한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한다. 아마도 그랬어야 할 것이다. 전북도가 익산 군산 임실 등 세 곳

을 첨단농업지역으로 조성한다고 밝힌 것은 매우 희망적이다.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일반 도민에게 일자리 창출은 최고 가치이다. 그 어느 때고 일자리 관심사를 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일자리 창출이냐말로 전북의 뭍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고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다.

전북 대도약 시대를 열기 위해 전북도는 탄소산업에도 많은 힘을 실어야겠다. 탄소소재는 자동차, 항공, 조선, 기계, 건설, 의료 등 그 응용 범위가 넓다. 전기가동차와 자율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북도가 의료기기 타킷 부품에도 눈길을 둔 것은 방향을 잘 잡은 거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항공기 원형 복합재 수리공정 기술 개발 사업에도 참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니 해당 업계의 기대가 클 터이다. 도민들은 우리 전북이 탄소산업에 관한한 한국 최고의 선두주자이기를 바라고 있다. 탄소 분야를 백년 먹거리 사업으로 키워야 할 책임이 있음을 도지사를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은 잊지 말아야겠다.

독자제언

스피드 시대에서 여유가 필요한 이유

5세대 이동통신 '5G'는 최대속도 20Gbps에 달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로, 전 세대인 LTE의 최대 속도보다 20배 빠르고 처리용량도 100배 많으며, 초저지연성과 초연결성을 강점으로 하여 VR, 16T 등을 구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사회는 위와 같은 기술력은 물론 마라톤, 수영 등 운동에 이르러까지 스피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시간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과잉적인 움직임은 법으로 정한 속도를 넘어 과속으로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병폐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최고 속도 60km/h인 서울 도심에서 외제차들이 177km/h로 경쟁을 벌이다가 부딪치는 사고로 이어졌고, 11월에는 충남 홍성군에서 술에 취한 대학생이 렌터카를 운

전하던 중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당시 CCTV가 잡아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과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을 적게 하는 대신 그 일을 잘 끝내라. 꿈이 이뤄지길 원한다면 그때 시간의 속도를 늦춰라. 매일 하나씩 그때 비밀을 쌓아 올려라. 이는 인류가 문명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은 12세기에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한 말이다.

경찰은 서울 등 전국 도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고 시속 220km 이상 주행 금지 및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법으로 규제하기 전에 '빨리빨리'의 조급증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진실하게 사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의 속도를 지금보다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정원 군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터키 아파트 붕괴 사고



10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8층 아파트 붕괴 현장 인근에서 소방대원들이 주변 건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현지 관계자는 구조대가 사망자 21명 포함 총 36명을 붕괴 전에서 찾아냈고 그중 14명은 부상자라고 전하면서 지난 나흘간의 구조 활동을 마친다고 밝혔다.

사외이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